

# 석유화학기업 하반기 915명 채용

코리아리크루트, 465사 2만2531명 달해 ... 취업경쟁률 10대1 넘어

하반기 채용시장이 2004년에 비해 7% 가량 늘어나지만 취업난은 여전한 것으로 전망됐다.

코리아리크루트는 주요 국내기업 465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5년 하반기 채용계획 인원이 총 2만 2531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고 9월28일 발표했다.

그러나 2005년 졸업예정자 역시 3.5% 증가한 27만8180명으로 추정돼 하반기 취업 경쟁률이 2004년 못지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전자의 채용예정 인원이 5990명으로 가장 많았고 IT통신 4092명, 금융 2975명, 기계철강 1655명, 자동차 1380명, 식품 1280명, 건설 1065명, 유통·서비스 982명, 공사 936명, 석유화학 915명, 조선 780명 등이다.

한편, 리크루트가 교육인적자원부 통계를 토대로 2005년 2월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예체능(74.0%)에 이어 공학계열의 취업률이 67.2%로 매우 높았고 인문계열 62.0%, 자연계열 60.4%, 사회계열 59.8%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65.0%로 2004년 56.4%에 비해 높아졌다.

<화학저널 2005/09/29>